

## 51장. 바벨론을 심판하심 (2)

51장은 50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다. 5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넣게 한다. 바벨론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 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반복해서 나온다. 같은 주제가 반복되게 서술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바벨론의 신에 대한 심판이다(50:2, 38; 51:17-18, 44, 47, 52). 바벨론의 신에 대한 심판을 수치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입혔던 수치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 1. 바벨론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회복 (51:1-33)

#### 1) 심판과 구원 (1) (51:1-6)

여호와께서는 파괴자를 바벨론에 보내어서 그들을 키질하실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젊은이를 아끼지 않고 모두 칠 것이다(51:1-4).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 심판의 과정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하여서 그들의 죄과가 그 땅에 가득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51:5-6).

#### 2) 심판과 구원 (2) (51:7-10)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 들린 금잔과 같아서 그 잔을 마시는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참조 25:15-16).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줄지에 넘어져 파멸되었다. 그를 고치려고 유향을 구하여서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미쳤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다(51:7-9).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행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들의 의를 여호와께서 드러내셨으므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할 것이다. 그들은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51:10).

#### 3) 심판과 구원 (3) (51:11-19)

여호와께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그분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 보복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영을 이루시되, 황충과 같은 많은 대적을 불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큰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사람은 미련하고 무식하여서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은 헛것이어서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의 경영은 헛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그 백성이 수치스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2. 바벨론의 무너짐 (51:20-33)

#### 1) 망치였던 바벨론의 무너짐 (51:20-26)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진멸하는 데에 사용하셨다.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목자와 양 떼, 농부와 소, 방백과 두령을 모두 멸할 것이다. '부순다' 는 말을 아홉 번 사용하여서 심판의 철저함을 점층적으로 나타낸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온의 거민에게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시온의 성전을 불태운 것처럼 그들도 불탄 산처럼 될 것이고, 영영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 2) 바벨론을 공격하라 (51:27-33)

여호와께서는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다. ‘예비/준비하라’ (27-28절)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서 시행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사방을 점령하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다. 바벨론은 추수 때처럼 철저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 3. 바벨론의 멸망과 진정한 통치자의 등장 (51:34-58)

## 1)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51:34-40)

시온의 거민은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먹고 멸하며 빈 그릇같이 되게 하며 용처럼 삼키고 자기의 좋은 것을 빼앗아 먹고 자기를 쫓아내었다고 탄식하였다. 시온에게 행한 잔학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피가 갈대아 거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보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바벨론의 바다와 샘은 마를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51:37. 참조. 19:8).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취하게 하실 것인데, 그 순간에 영영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 2) 바벨론에 대한 애가 (51:41-44)

‘세삭’의 함락을 애도하는 것으로 이 문단이 시작하는데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벨론은 온 세상의 칭찬을 받는 성으로 생각하고서 스스로를 높였는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게 되었다. 그 황폐함을 물과 불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바벨론이 바다처럼 다른 나라를 삼켰는데 이제 많은 파도가 그 나라를 덮었다. 바벨론은 또한 마른 땅과 사막처럼 되어서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벨’을 벌한다고 하셨는데 ‘벨’은 ‘주인(Lord)’이라는 의미로 마르독을 가리킨다. 바벨론이 용처럼 다른 나라들을 게걸스럽게 먹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 3) 이스라엘의 구원 (51:45-48)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와서 ‘여호와와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바벨론에 진노를 쏟으실 때에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상들을 벌하시면 그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사람이 모두 그 땅에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이 북방에서 내려온 자에 의하여 멸망될 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기뻐 노래할 것이다.

## 4) 이스라엘의 도망과 바벨론의 무너짐 (51:49-53)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고 엎드러뜨렸는데 다른 민족에 의하여 동일하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방인이 여호와와 집에 들어가서 회파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였는데 여호와께서도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다. 하늘까지 높아진 그들의 교만을 여호와께서는 멸망시킬 자를 보내어서 처리하실 것이다.

## 4) 바벨론의 종말 (51:54-58)

여호와께서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가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을 파멸시킬 것이다. 보복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잠들고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 4. 예언자의 선언 (51:59-64)

시드기야 4년에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스라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이르면 이 책을 읽도록 하였고, 그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테 강 속으로 던지도록 하였다. 그 책이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였다.

**목상과 실천:****교만한 바벨론의 심판과 성도의 찬송**

## 1. 교만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이 권력과 재물을 움키려고 젊은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것으로 연회를 베풀 것이지만,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51:38-39). 이것은 다니엘서 5장과 연결된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던 그 시점에서 바벨론은 무너졌던 것이다.

## 2. 성도의 확신과 찬송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두려운 소문들이 들리면 쉽게 겁을 먹을 수 있다(51:46).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 전쟁의 소문이 두려움을 주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 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마 24:10, 13).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제시하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신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되어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계19:1-9).

## 51장 익힘 문제

1. 금잔에 담긴 포도주로 열방을 취하게 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7절)
2.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어떤 나라를 쓰셨습니까? (11, 28절)
3. 13절에서는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거하는 자' 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습니까?
4. 바벨론의 신들은 헛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보수자는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18, 19절)
5. 1)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책에 기록한 예레미야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 바벨론에 가서 읽도록 했습니까? (59-62절)
  - 2) 그 책의 내용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읽어 준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63절)
  - 3) 그 뜻은 무엇입니까? (64절)